

# 광산구, 송정역세권 발전·활성화 총력

### 13일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금타 이전 등 현안 시민토론회

광주 광산지역 시민사회들이 지역 최대 숙원인 광주송정역세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는 '범시민운동'에 나서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광주송정역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범시민적 대응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산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및 광주송정역 인근 아파트입주자대표 등을 주축으로 '광주송정역세권 발전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오는 13일 광산구청 운상원에서 출범을 알리는 결의대회와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말 준비회의를 통해 공동대표를 선출했으며, 상임위원회 및 자문위원 구성 등도 마무리한 상태다. 또 실무를 맡을 상임위원회에는 광산구 21개 동 사회단체와 여성·경제인·청년·장애인 등을 대표한 10인이 참여한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광산구는 물론 광주 발전의 '핵심 열쇠'인 광주송정역세권 발전을 어렵게 하는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선 범시민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됐다.

KTX 호남선 개통 후 광주송정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 2만 2000여 명(1일 평균 유동인구 4만 4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호남권역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타 광역시·도 고속철도역에 비해 열악한 인



광주송정역세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 중 하나로 수년째 이전 사업 계획이 지지부진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프라 등으로 이용객 불편을 물론 휴식·문화 기능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지지부진한 점도 약재다. 송정역 일대 확장적 발전을 위해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출범식을 겸한 시민토론회를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해결을 바라는 시민의 뜻을 모으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등 시민 연대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도 범시민운동본부의 활동이 광주송정역세권 활성화에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주의 얼굴인 광주송정역과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주도 시민 운동이 현안 해결은 물론 지속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나서준 시민과 함께 광주송정역세권의 획기적 변화·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종합 서커스·타악 판소리 펼쳐진다

### 11일 '아슬'·18일 '꼭꼭 숨어라! 토선생 찾기' ...광산문예회관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종합서커스와 타악 판소리 가족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11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국내 최고 종합서커스인 '아슬' 공연을 연다. 공연은 막대, 끈 등을 활용해 무대부터 공중까지 활용한 다채로운 기예를 선보인다.

특히 아슬아슬한 곡예와 균형을 은유하는 구조물, 고물을 재활용한 타악기 연주, 전자음악 협연 등에 더해 서사와 사회성을 담은 다양한 기예 공연 등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단체인 '포스(FORCE)'의 이영호대표는 "아슬은 많은 청년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며 "아슬아슬 균형을 이루는 서커스를 통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은 11일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 진행된다.

이어 18일에는 타악그룹 '일쑤'를 주축으로 만든 가족 연희극 '꼭꼭 숨어라! 토선생 찾기'가 초연된다.

'꼭꼭 숨어라! 토선생 찾기'는 고전문학 '별주부전'을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돌아다니는 별주부의 광주 일대기로 각색한 타악 & 판소리 가족극이다. 이야기를 명확하게 진행



하고 표현하기 위해 판소리라는 형식을 차용, 소리꾼이 극의 내용을 담당한다.

광주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알리는 한 판 공연이란 점도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다.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광주를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또 어린이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친숙한 전래동요를 활용해 단어를 연상하고 극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가족 연희극 '꼭꼭 숨어라! 토선생 찾기'는 '2023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후원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으로 마련됐다. 지난 8월 '락의로'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다. 공연은 18일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 진행된다. 전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고, 관람료는 무료다.

공연 예매 및 자세한 내용은 광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 문의는 광산구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음주·중독 폐해 예방 합동 캠페인

### 10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지구... 체험·상담 등 6개 부스 운영

광주시는 10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지구 탐방안내센터 앞 잔디공원에서 '음주 및 중독 폐해 예방 유관기관 합동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캠페인은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음주 및 중독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및 중독 예방·관리 서비스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 동구·서구·북구·광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군연계지원센터, 광주스마트쉼센터,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지원센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 등 10개 기관이 함께 한다.

캠페인은 '내일이 빛나는 중독 청정 광주'를 주제로 ▲음주고급체험, 마약피플 맞추기, 중독젠기퀴즈 등 중독체험부스 ▲알코올과 기타 중독 정보 패널, 마약류 모형 등 전시부스 ▲혈압·혈당, CO(일산화탄소) 측정 등 건강부스 ▲알코올, 니코틴, 도박, 스마트폰 중독선별 및 전문상담 등 상담부스 ▲담배 인형탈 활용 사진촬영 포토존 등 6개 주제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시민 중독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자치구마다 1개소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중독문제 예방·관리를 목표로 중독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독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중독 고위험군 조기 선별 및 개입, 중독질환자(가족) 등록 및 사례관리, 중독질환자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혜자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관 간 협력사업을 추진해 중독예방관리사업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광주시, 동절기 사고 예방 건설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광주시는 "동절기 대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역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공동주택, 도로, 상수도 등 주요 건설공사장 91곳이다. 특히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주시,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난방·전열기구 용접작업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기작업 때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폭설·강풍 등을 대비한 가설구조물 전도, 침하 예방관리 등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전반이다.

광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위험요소 해소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 겨울 최대 40cm 가량의 기록적 폭설이 발생하는 등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실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주민-시민 화합 '국경 없는 예술제' 성료

### 광산구, 네पाल 이주민들과 소통·화합 어울림 한마당

광주 광산구는 "네पाल 이주민과 지역 시민의 화합을 돕기 위한 '2023 국경 없는 예술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지난 5일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진행된 '2023 국경 없는 예술제(부제: 별빛 품은 소촌, 夜하게프로젝트)'에 관내 네पाल 이주민과 지역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네पाल 지진 피해자를 애도하는 묵념에 이어 개회식 및 네पाल 공동체 영화 상영, 디제

잉·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물물교환 장터 등 이웃과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공경희 광산구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네पाल 이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주민과 지역 시민을 위해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